

# 퇴근전 주문하고 집에서 받는다...광주도 '2시간 배송'

롯데마트 수완점 '바로 배송' 도입  
수완·신가동 등 반경 2km 배송 가능  
맞벌이 가정 중심 30대 구매 최다  
신선 111%·가공식품 94% 매출 ↑

“퇴근하기 2시간 전에 주문해서 집에서 받아  
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비대면 구매와 '집밥'  
이 일상이 되자 대형마트 업계가 주문 당일 물건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짧게는 퇴근 2~3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집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어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롯데마트 광주수완점에 따르면 이 점포는  
지난달 13일 '바로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다.

롯데마트 수완점은 지역 점포 가운데는 처음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열어 바로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달까지 롯데마트 '바로배송' 서비스를  
들인 매장은 전국 15곳으로 늘어났다.

주문 2~3시간 만에 물건을 배달하는 서비스로,  
배송 가능 지역은 광산구 장덕동·수완동·신가동·  
신창동·운남동·흑석동·월곡동 등 아파트 27개  
단지에 이른다. 이들 배송 가능지역은 롯데마트  
로부터 반경 2km 안에 위치해있다.

롯데마트 수완점은 바로배송 서비스 도입 초기부터  
인기를 끌고 있어 지난 달 말 배송 차량을  
기존보다 50% 이상 확충했다.

주문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받는데,  
매일 할당량의 100% 전량이 마감된다고 롯데마

트 측은 밝혔다. 주문 대부분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전에 몰린다.

롯데마트 수완점이 한 달 동안 구매 현황을 분석  
해보니 평균 구매금액은 1건당 4만원 정도였다.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구매품목은 생수, 라면 등 가공식품과 과일,  
채소, 정육 등 신선식품이 주를 이뤘다.

롯데마트가 지난 달 '바로배송' 서비스 제공  
점포(15개)의 온라인 매출을 분석해보니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의 매출 증가율이  
각각 111.3%와 93.9%를 기록했다.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인근 매장에서 2시간 이내  
배달하는 바로배송 서비스의 이런 실적은 전체  
113개 점포의 지난달 평균 매출 증가율인 50%  
선을 웃돌았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신선  
식품이 바로 배달되기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가  
바로배송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바로배송 서비스로 2만원 이상 구  
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할인권과 최대  
5000점 옐포인트를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  
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3일 롯데마트 광주수완점 직원이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2시간 안에 배송하는 '바로배송'을 위해 상품 준비를 하고 있다. <롯데마트 제공>

언제와요? 지금바로!  
바로배송

## “향긋한 봄나물로 지친 활력 깨워요”

광주신세계, 심초·봄동 등 선보여

연일 지속된 한파가 주춤한 가운데 봄나물이 지역  
소비자 발상에 오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분관 지하 1층 푸드마켓에서 다  
양한 봄나물을 선보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봄을 상징하는 나물에는 무치거나 국거리로 활용  
되는 냉이, 달래, 봄동 등이 있다.

이들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영  
양을 보충하고 생활의 활력을 되찾는데 매우 효과  
적이라고 광주신세계는 설명했다.

광주신세계는 심초(100g·1580원)와 봄동  
(100g·380원), 달래(1팩·2980원), 냉이(100g·  
2980원) 등을 선보이고 있다.

17일까지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  
된 브로콜리(1봉·2200원)와 요리에 색을 더하는  
파프리카(4개·6800원) 등을 내놓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3일 광주신세계 직원이 지하 1층 푸드마켓에서 각종 봄나물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혼코노미 시대...1인 가전·선물세트 인기

이마트, 1인 프리미엄 라인 출시  
롯데마트, 소포장 선물세트 구성

대형마트들이 연초부터 '1인 가구' 고객에 맞춘  
상품을 자체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마트는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프리미엄 라  
인'을 출시하고 그릴, 커피메이커 등 20여 개 제품  
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마트에 따르면 일렉트로맨 '혼족 가전의 전  
년 대비 매출은 2019년 150%에 이어 지난해 80%  
증가했다.

지난 2018년 첫 출시 당시 주방가전 7종으로 시  
작한 일렉트로맨 혼족 가전은 현재 생활·계절 가전  
으로 범위를 넓히며 종류가 20여 종에 이른다.

이번에 선보이는 프리미엄 라인은 활용도를 높  
이기 위해 기존 혼족 가전보다 용량을 늘리고 편의  
기능을 추가했다.

또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높였다  
고 이마트는 소개했다.

지난 10일 판매를 시작한 '일렉트로맨 프리미엄

혼족 라면포트'는 라면이 2개까지 들어간다. 라면  
·즉석밥·삶은 계란 등 자동메뉴 설정과 보온 기능  
도 추가됐다. '일렉트로맨 프리미엄 전기포트'는  
용량이 기존보다 2배 큰 1.1로, 분리형 뚜껑을 활  
용해 내부 세척이 쉽고, LED 화면으로 온도를 확  
인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설 명절을 앞두고 1~2인 가구를 위  
한 선물세트를 내놓았다.

부위별 200g씩 구성한 한우 세트와 소포장한 견  
과류가 대표적이다.

한우 등심과 채끝살을 각 200g 6개로 구성된  
'한우 한끼 구이 세트'와 한우 등심(200g) 2개, 안  
심·채끝·치마·부채살 등 인기 부위를 각 200g으로  
구성한 '한우 한끼 구이 세트'가 있다. 설 선물 사  
전 예약판매 기간(~2월1일)에 사면 10% 할인 받  
을 수 있다.

롯데마트가 선보이는 '넛박스 6종' 선물세트  
는 프리미엄 견과를 혼합해 먹기 좋게 소포장한 프  
리미엄급 세트로, 아몬드와 호두, 건크랜베리, 대  
추야자 등으로 구성됐다.

롯데마트가 선보이는 '넛박스 6종' 선물세트  
는 프리미엄 견과를 혼합해 먹기 좋게 소포장한 프  
리미엄급 세트로, 아몬드와 호두, 건크랜베리, 대  
추야자 등으로 구성됐다.

롯데마트가 선보이는 '넛박스 6종' 선물세트  
는 프리미엄 견과를 혼합해 먹기 좋게 소포장한 프  
리미엄급 세트로, 아몬드와 호두, 건크랜베리, 대  
추야자 등으로 구성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 名 作 名 作 名 作

광화문父子작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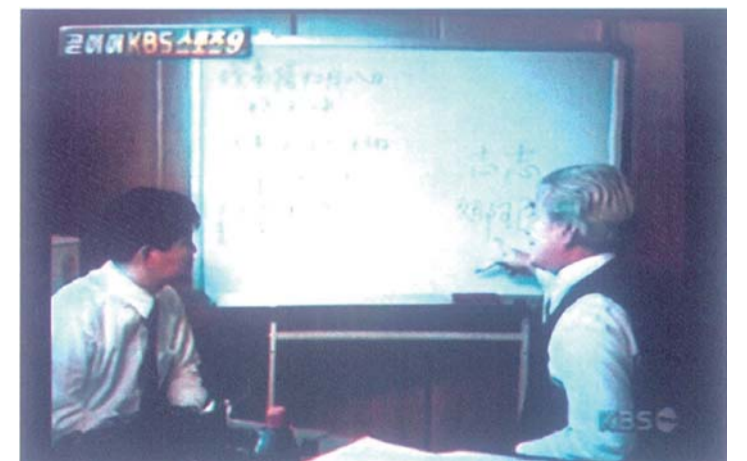
##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 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  
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  
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 (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작명가 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作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 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당시 白山 선생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 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